

여수·순천·광양

“구수한 동네이야기 재밋어요”

순천 덕연동사무소 마을 역사 알리기 앞장
책자 5천부 제작... 초등학교 돌며 교양강좌도

“지금의 울산(栗山)은 500여 년 전 고려장수가 긴 칼을 숨겨 놓았다 하여 칼도, 장수장, ‘도장(刀將)고을’로 불렸습니다”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구전돼 내려온 마을 이야기와 순천시(史) 등을 토대로 마을 이야기책을 만들었다.



순천시 덕연동사무소가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교양강좌를 개최하는 등 마을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와 현재 모습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교육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랑하기·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순천·여수·광양 통합해야”

광양민권발전연구회... 통합논의 재점화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등 3개 시에 대한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팀장은 “광양민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광양 컨테이너부두 운영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광양민권이 국제화 추세를 수용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확대조정이 절실하다”고 3개 시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여수(해양중심도시), 순천(교육중심도시), 광양(산업중심도시)의 장점을 살려 통합을 추진하면 각 시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경찰서(서장 김진희)가 51년 전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다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뒤 독도 경비 근무 중 순직한 고 김영열 경사의 부인 박복자씨와 아들 김수원씨 등 유가족들을 찾고 있다.

둔덕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 담그기’

여수시 둔덕동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주말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총각무로 김치를 담가, 홀로 사는 노인 20가구에 나눠주었다.



이들은 “이제는 광양민권 자치단체들이 상생을 위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 김 경사의 위령비를 독도에 건립하기 위해 유가족을 찾고 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건물투자
•보종금 36억 원에 3,000만원 (지역최고상권) 용차 12억 매개 8억 (토지와 교환가능)

정우부동산

건물매매
•대지 260평 건적 약600평 지하 1층 지상3층 매매가 9억8천만

첨단월세공인중개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대지 대주택, 물류창고, 복식 실버시설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대55평 전50평 지하층 주차가능

알파공인중개사

상업용 건물매매
•매가: 80억 용12억, 보36억 월세 3,000만원 (최고상권)

최고의 A급 상가를 찾고 계신분들

존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님들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BM 公認仲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인만이 아니다. 내공이심에는 최소한 3개월전에 연막수십시요.